

## 위성통신시대의 기술, 인간, 교육

康 俊 吉  
광운대학교 총장

전자공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참여한 과학기술자들에게는 현대사회에서 탤런트적 인기에 버금가는 자긍심을 전해주었다.

우리의 사회에 기여한바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자공학의 발달이 우리의 생활에서 이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성통신시대의 개막은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적 초월을 현실화하여준것도 사실이지만 궤도상에 떠 있는 위성의 입장으로 볼때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정보로서 우리의 회노 애락을 전해주고 있다.

기하학적 거리와 물리적 크기에 비하여 우리의 존재가 외소해짐을 느끼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첨단기술문명의 존재로서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바빠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믿고 있거나 않는지? 과학은 인간을 위해서라기보다 과학은 자연의 범위에서 자연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까?

### 기술의 유혹

자연은 주위의 환경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진화가 계속 되어 왔다. 인간에 있어서 문명의 발달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술의 발달과 비례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이란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만이 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을 기술이라 인정받게 된다. 분명 인간의 생활 환경 변화는 과학적 기술에 의한 혜택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왔다. 이것은 훌륭한 학자와 기술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탐구 혹은 욕심에 기인된 경쟁의 부산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분명히 기술은 오늘날의 과학 문명을 창출하는데 적대적인 역학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발달과 첨예화는 많은 사업을 일으켜 산업적

욕망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여 왔고 또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던 학자들과 발명가들의 성취감에 큰 역할을 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하여튼 기술의 발달이라 함은 그 기반이 인간적 바탕에서 출발된 학문인 것 같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더 많은 존재들이 행복하여야 하며 더 안락하여야 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복잡한 과학 문화적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방황을 하는 시대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워 간다. 확실히 기술은 발달과정에서 특히 첨단 기술의 유혹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사업가들을 유혹하는데 훌륭한 재료가 된다.

산업적 기술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다짐하려고 하고 문화적 기술 발달로 인하여 사회생활과 우리 주변의 생활 여건이 더 윤택해지며 편리해 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심도 기술 발전 추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달은 국가적 자존심에 더 강하게 표출되는 사항이며 오늘날의 국가간의 경쟁에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은 첨예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군사적 기술은 놀라움과 함께 공포의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2차 대전과 또 최근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첨단 기술 전쟁에서 그 결과를 느낄 수 있다.

진정 기술은 이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사람 자체로 부터 더 안간다워야 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철학으로 다듬질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진정 기술을 매력의 포인트이지만 잘 못 구성된 기술이든가 또는 바람직한 목적이 아닌 부분의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 첨단 기술의 전쟁터

일등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갖고 오직

노력하는 자만이 그리고 최우수자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말을 흔히 보고 듣게 된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러한 긴장감과 긴박함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생활이 되었는지 쉽게 해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적 경쟁 사회에서 우리도 더 높은 기술 더 나은 환경 또는 더욱 효과적인 협조에 의하여 많은 경제 부분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첨단 기술이란 분야를 정해 놓고 이 부분에 투자와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기술 대열에 통합되고 있으며 경쟁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함께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통신의 기술적 혁명과 전자 공학의 산업 혁명적 기여는 오늘날 모든 산업 구조와 인간 생활 정보의 순환 속도와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실로 이 부분의 발달이 첨단 기술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도체가 그랬고 통신기술중에서 위성용을 이용한 부분, 방송 시대의 위성방송개국등은 첨단 기술의 각축장으로서 세계적 무대에 정식 데뷔한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몇몇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총체적 협심과 그리고 산업계와 교육계의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에 아울러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탐색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의 군사기밀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산업 기술의 중요성이 각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은 소유하고 있을 때에 위력을 발휘하며 자랑할 때는 이미 그 위력에 효력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본다. 그만큼 고독하고 힘들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첨단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첨단 기술이라 함은 아무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며 기술개발의 성공도가 훨씬 낮은 그러나 기술의 이상적인 영역에 도전하는 부분이 첨단 기술이라 일컬어진다.

정보화 시대의 기술은 이제 유형적인 기술에서 무형적인 기술 즉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이 부분에

크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능력과 창안의 두뇌적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전쟁병기와 같은 첨단 기술의 공포성도 느낄 수 있으며 그러나 안전에 기여하는 우주여행의 항법 장치 또는 항공의 안전 기술 장치 등에서 첨단기술의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 정보통신의 마약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흔히 들어왔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오늘날의 유행어가 되었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문명사회에서 뒤떨어져 가는 존재로 인식되어질 만큼 이 용어는 평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달과 특히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생성과 송달 그리고 그 흐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비대하여 졌고 속도 또한 무척 빨라진 상태이다.

우편의 발달이 정보통신의 기원으로 삼는다 하면 전화의 발달로 인한 음성정보통신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혁신적인 컴퓨터 통신 시대에 도열되고 있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무선통신의 발달과 개인 휴대 통신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간 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처음에 느꼈던 편리함이 시간이 갈수록 따라 기술 문명적 틀에 의하여 인간이 스스로 속박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담감도 갖기 시작함은 확실한 표현이다.

오늘날 전화 없이 생활함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점차 개인용 무선통신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알기를 원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정보의 질과 양과 그리고 속도에 함께 순응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매력이 점차 감소된다고 보고 싶다. 과연 우리 생활에 그만큼 바쁜 정보와 많은 정보량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까지 한때 가져 보기도 한다.

남보다 먼저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함이 지식의 기본 틀로 여겨져 왔던 우리의 생활에서 인간에 의하여 숙성된 정보의 존재는 이전 인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도구가 되어 있고 이 조직에 함유해야 하는 우리의 스스로를 무척 바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과연 정보는 매력 있는 존재이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바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시인은 정보의 홍수에 대하여 전화도 TV도 방송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목가적 외침을 기억나게 하기도 한다.

### 위성통신 시대의 교수 역할

교수는 가르치는 자이다. 이것은 배우는 자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의 교육 형태는 스승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이 몇몇 있었다. 모든 지식의 흐름은 스승으로부터 나왔고 또 어느 누구도 선생을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학생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원천은 훈장의 가르침과 설명에 의하여 나올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훈장의 지위는 훌륭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문명인으로서의 존재를 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다.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은 신문이라든가 방송, 그리고 많은 서적들 혹은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직접 접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의 정보는 주위 사람 혹은 어떤 경우에는 스승의 지식의 도를 넘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이제는 정보의 원천과 내용은 독특한 자만의 전형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는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일컬어 구 세대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이러한 근원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싶다.

우리는 과연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

이제는 지식의 내용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가공된 정보와 농축된 지식의 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중점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과거의 지식 전수 방법은 가르치고 배우는 직선적인 관계에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 하는 창안적이며 개발적인 능력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교수상인듯 싶다.

전문적인 지식은 경험과 연구에 의하여 전달된다고 보고 싶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달과정에서 창안적인 경험을 통하게끔 하고 발전적인 능력을 향 상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고 터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오늘의 교육 형태는 다방면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지식의 프랑케슈타인을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 지식의 의욕과 흥미를 통하여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 영역에 도전하게끔 훈련시키며 그 결과가 훌륭한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에 틀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의 역할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훌륭한 교수와 연구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성 있는 문화적 환경에서 우리가 배출해야 하며 능력 있는 자를

키우는 데 열성을 가한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도 계속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훌륭한 스승 상은 가장 훌륭한 모범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빛나는 것 같다. 아직도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탄생이 된다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 위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시대가 있었다. 분명 정보의 흐름은 많은 것으로부터 나온다.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그리고 많은 서적들 또한 교통의 발달로 인한 물자의 교류 및 사람의 교류도 정보의 전달량과 속도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익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달하게 된다. 분명 많이 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생활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지연하는 것을 결코 아닐 것이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 속에 우리는 허덕이지 않는가? 또 그 많은 정보 중에 유익한 정보 외에 우리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유해한 정보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어 갈 수 있다. 마치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이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의 음식만 섭취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산소량을 숨을 쉬면 우리는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크기와 종류는 무엇일까? 또 어떠한 규모의 정보 습득과 소화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면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남보다 많이 알고 빨리 알아야 한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향한 달음질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금메달을 얻는 순간에는 영광이 뒤따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형태는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그러나 쉬지 않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분명 필요한 양만큼의 물고기를 가지면 우리는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의 음식을 소요한다면 그만큼 낭비와

다른 사람이 섭취해야 될 정보량을 소유하게 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질 즉 삶의 태도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 본다.

많은 정보가 존재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극히 제한된다고 보고 싶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혼잡한 정보의 종류가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본다.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매체에 매달려야 하는 오늘날의 생활 태도도 그렇지만 그 매체를 통하여 주입되는 사회적 향락과 사회의 어두운 부분의 소식 그리고 무료함을 줄 수 있는 정보 또는 공포의 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 어두운 뉴스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닐 것 같다.

어떤 철학자는 매체의 전달 방법이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훌륭한 그리고 안정된 정보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정보는 필요하지만 그릇된 정보는 그리고 반사회적 정보는 우리의 생활을 혼탁하게 할 수도 있으면 우리의 참신한 문화적 생활에 역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싶다. 정보는 아름답지만 잘못 사용된 정보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본다.

### 과학은 철학이다.

과학이 인간 문명에 문명의 발달 도구로서만 고려된다면 우리는 극히 우려를 범할 수 있다. 인간이 창안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의 흥미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과 거리를 갖는 방향의 발달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에 의하여 발달된 문명은 인간에 의하여 지배되고 사회적 환경은 다시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끝이 없는 발달 욕구는 우리의 욕망만 한없이 키워 줄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진정 인생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프트웨어적인 바램이다. 과학자들은 흔히 이면에 크게 치중하며 연구 생활을 하여 왔다. 또 과거의 학자들은 그 규칙을 지켰으며 학문의 발달이 진정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다.

여기에 비하여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힘과 재앙을 동시에 줄 수도 있다. 경제력의 발달은 빈부의 차이를 확대시켜 인간의 정신적 갈등을 조장하였고 계층 변화의 형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방황할 수 있는 길도 보여줬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연의 현상은 평형에 근원 한다고 본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기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삶을 평범함을 느낄 수 있는 과학자들의 노력이다. 과학을 위한 과학은 의미가 작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과학의 목표는 훌륭하며 확실한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로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느낌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마음의 소프트웨어적 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의 행복에 관한 새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것일까?

### 문명 시대의 인간 그리고 교육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명의 발달의 기본적인 근원은 과학 문명의 발달 즉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여

기에 관하여 쉽게 단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가?,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그늘진 곳이 더 많이 생성되지는 않았는가? 기술 문명이 발달된 국가에도 그늘진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늘에 가려져 살고 있는 존재도 분명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긴 존재일 것이다. 문화적 사회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일원인 인간이 얼마만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회를 인정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또 실제적으로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들이 진정 인간다운 삶과 인간다운 보람을 갖고 있는 존재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여야 될 과제라고 본다. 기술적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경제적 생활 수준과 문화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생활의 바탕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마치 나무 꺾대기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문명의 추락은 다시 옛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추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서 우리의 기술적 문명에서 전기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적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명의 틀이 모든 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성장되어 왔다 하면 우리는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정신적 자세 즉, 인생의 소프트웨어적인 문명의 발달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적 문명의 성공보다 인간성의 소프트웨어적인 문명의 틀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할는지 모른다.

과거의 수천년전에 이루어진 옛 성현들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훌륭한 인생의 소프트웨어적인

지혜와 지침을 받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는 과학적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옛 성현들의 충고와 철학에서 오늘날까지 그분들의 영향이 사회에 크게 미침을 느낄 때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의 소중함을 느낄 때 오늘날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삶의 소프트웨어적인 문명의 기술자가 더욱 필요로 하게 된 시대에서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창출하는 것은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싶다. 자연의 여러 동물중에서 다 방면으로 교육을 하며 성장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틀은 기술적 교육과 함께 인간성의 교육도 수행하여야 될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와 데스크톱의 열림 교육 시대에서 특별한자만의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교육장이며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큰 교육의 실험장이 될 수 있으며 작게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이 우리의 참교육의 기본이 됨을 모두 느끼고 있다.

인성교육이라함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는 봉사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 하이텍의 유토피아는 과연?

첨단 기술은 방법의 하나이지 목적이 아니다. 과학 문명, 물질문명을 포함한 현대적 사회관은 흔히 외형적 가치관만에 의하여 서술되고 있다.

정보하이텍문명의 추이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정보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과학자나 이 슈퍼하이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사회적 형성은 간단치 않다.

어느새 우리의 만족 형태는 물질적 혹은 가시적 측정량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오류를 동반하고 있다. 사실 행복과 만족은 마음으로 느끼는 소프트웨어이지 결코 신체적 감각을 자극하는 하드웨어적

인 것이 결토 아니다. 또 베풀며 느끼는 행복은 어느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우리만의 소박한 인간적 감정이다.

첨단 기술의 위대성은 진정 첨단 애정의 소유자만이 그 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 자 소개



康 俊 吉

1960年 3月~1963年 3月 경북 왜관 순심고등학교 졸업  
 1963年 3月~1967年 2月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사)  
 1967年 9月~1969年 9月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1972年 3月~1979年 3月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1972年 3月~1996年 현재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980年 8月~1981年 8月 미국MIT 객원교수  
 1982年 2月~1996年 현재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 공업전자직종장  
 1989年 3月~1993年 2月 한국통신학회 이사  
 1990年 6月~1996年 현재 JTCI SC25 의장  
 1992年 3月~1994年 8月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1994年 8月~1996年 현재 광운대학교 총장